

▲ 2007 고급육 생산 돼지부문 우수농가에 선정된 양돈농장(사진 왼쪽부터 양돈협회 정광진 주임, 양돈농장 정병출 사장, 아들 정동연씨)

고품질 고급육 생산만이 살 길이다!

양/돈/농/장

취재 정광진 · 오유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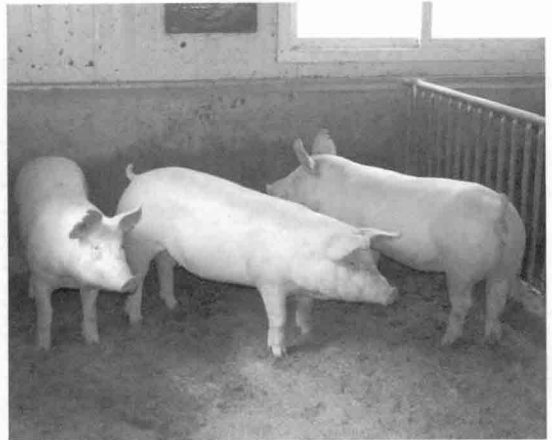
밀려오는 수입 돼지고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사료값. 저돈가로 제 값도 못 받아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4~5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 여기저기에서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는 푸념이 터져 나온다. 마치 시험선고라고 받은 것처럼 양돈농가들의 가슴은 꺼렇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양돈농가들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저마다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 대책중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돈육 생산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FTA와 사료가격 상승 등의 위기 속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해도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의 고급육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면 농가소득 제고가 불가능하지 않는다는 신념과 소신으로 노력하고 있는 농장이 있어 찾아 보았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 이하 등판소)는 지난 2007년 12월 14일 '2007 고급육 생산 우수 농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간의 등급판정 통계자료를 토대로 돼지와 한우 각 부문별로 최고 성적을 낸 농가에 대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돼지 1백18개 농가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돼지부문 총 13농가가 선정되어 수상했다.

이번에 취재한 '양돈농장(대표 정병출)'도 우수 농가로 선정된 농가중 하나. 지난 해 돼지부문 우수상(전남)을 수상한 정병출 사장의 양돈농장은 연간 964두를 출하해 육질1등급 이상 90.1%, 육량A등급 53.4%을 기록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정병출 사장이 이야기하는 양돈농장의 고급육 생산비결중 하나는 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에서 구입한 우수한 종돈을 활용한 삼원교잡종을 이용한다는 점을 꼽았다.

양돈농장의 고급육 생산비결

약 25년 전에 돼지 2마리를 시작으로 양돈업에 뛰어난 '양돈농장' 정병출 사장은 현재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서 돼지 1,900두를 사육하고 있다. 등급판정 우수농가에 선정된 비결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특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정병출 사장이었지만 돼지를 대하는 말투 하나하나에 정성과 숨씨가 배어나온다.

가. 검정소를 통한 최우수 종돈 선별 구입

그가 말하는 첫 번째 비결은 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에서 구입한 종돈을 활용한 삼원교잡(모돈 YL×부계D)종을 절대적인 활용이다.

정병출 사장은 사료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돼지 형질이 우수해야 육질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하여 3원 교배잡종을 생산하여 출하하고 있으며 특히 웅돈(듀록)의 경우 양돈협회 제2종돈능력검정소에서 최우수 종돈만을 선별 구입하여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검정돈을 제2검정소에서 구입하기 시작했다는 정병출 사장은 검정소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돼지를 구입해 성적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아낄 것은 최대한 아껴야 하겠지만 번식돈의 경우 앞으로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언제라도 좋은 돼지가 있다면 계속 검정소를 통해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1> 양돈농장 등급판정결과(2007)

구분	육질	1+등급	1+등급 이상	육량	A등급	B등급 이상
출하두수	964두	19두	849	2777	1,484	2,243
		2%	88.1		53.4	80.8



▲ 차단 방역 위한 차량소독기 작동 모습.



▲ 정 사장은 악취 발생의 억제를 위해 돈사시설을 개조하고, 생균제를 사용해 악취저감에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어 민원 문제를 해결했다.

나. 철저한 사료 급여 프로그램 준수와 영양적 보충

요즘 사료가격이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다. 사료 급여 프로그램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사료허실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사장은 그동안 젓먹이사료를 길게 먹였지만 사료가격부담으로 최근에는 젓먹이 사료구간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간의 사료를 약간 앞당겨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돼지에게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출하일령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고 있다. 특히 고급육 생산을 위해 비육사료 급여기간 동안 영양 보충제를 첨가한 배합사료를 급여하여 돼지들의 출하일령 지연이나 육질 저하에 대비하고 있다.

다. 규격돈 생산 위해 선발 출하

그는 규격돈 생산을 위해 출하일령은 보통 170~175일령, 110kg 이상의 돼지를 선발 출하하고 있다.

암, 거세 분리 사육과 철저한 사양관리를 시행하여 규격돈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돈방 털이처럼 같은 돈방내에 있는 돼지를 모두 출하하는 게 아니라 출하일령에 위축되거나 출하체중에 도달하지 못한 돼지는 따로 마련된 돈방에서 규격 체중까지 키워낸 후에 출하한다. 출하체중은 보통 115kg 이상을 유지하여 A등급 체중 출현율을 높이고 있다.

라. 돼지 스트레스의 최소화

그는 돼지가 스트레스로 인해 육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적정 수송밀도 준수와 돼지 이동 또는 출하시에 절대 구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농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축장을 이용함에 따라 출하와 도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있다.

마. 만성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현재 양돈농장은 주변에 약 500여 가구가 밀집

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3년 전만 해도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군청의 관계자가 거의 매일 농장을 방문할 정도였다고 한다.

정 사장은 악취 발생의 역제를 위해 돈사시설을 개조하고, 생균제를 사용해 악취저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철저한 사양관리와 시설관리 역시 악취저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지금은 악취저감 우수농가로 타 지역에 소개될 만큼 악취가 거의 나지 않고 주민들과의 친화도 좋아졌다. 지속적인 양돈업을 위한 노력이었다.

돼지가 그냥 좋다는 양돈인 가족

현재 양돈농장의 운영은 정병출 사장과 함께 아들인 정동연(27)씨 두 부자(父子)가 함께 맡고 있다. 아들 정동연 씨는 연암축산대학에서 양돈을 전공한 2세 양돈인.

아버지를 도와 농장의 경영과 출하, 사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병출 사장은 이제 아들이 없으면 힘들다고 할 정도로 정동연씨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동연 씨에게 양돈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묻자 “돼지고기는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백질 공급원”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 공급하는 것은 군인이 국가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MSY 20두를 기록할 정도로 생산성이 우수했지만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현재는 18.5두 정도로 약간 떨어졌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양돈농장을 가꾸는 것이 꿈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



▲ 든든한 아들 정동연씨(사진 오른쪽)와 함께 양돈업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고 싶다는 정병출 양돈농장 사장.

사료가격 폭등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높은 생산성과 최고의 고급육 생산 우수농가이지만 요즘 양돈농장 정병출 사장의 얼굴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 등급판정이 우수한데도 돈가가 워낙 낮아 겨우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는 것이다. 양돈농장의 경우 아직 경영위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주변 농가들이 적자가 계속 이어져 폐업과 도산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식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FTA로 인해서 수입육이 들어와도 차별화된 국산 돼지고기 고급육으로 승부를 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료가격 폭등때문에 양돈농가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병출 사장이 양돈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정병출 사장은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요즘처럼 불경기에 양돈농가들이 우리 돼지고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우리 양돈 현장을 지키기를 바란다는 의지와 기대를 모으자”고 다짐했다. **양돈**